

# 주목! 이영화 시트콤 영화화 '올드미스 다이어리' 막바지 촬영

'버라이어티 코믹 소동극'을 표방한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감독 김석윤, 제작 청년필름·씨이더스FNH)의 25일 촬영현장. 동명의 KBS TV 인기 시트콤을 스크린으로 옮기는 이 영화는 시트콤의 출연진과 감독이 그대로 다시 뭉쳤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둘째 할머니 역의 한영숙이 촬영 도중 갑작스레 세상을 뜨는 바람에 서순현으로 교체됐을 뿐,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트콤 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8월 초에 촬영을 마무리하고 올 겨울에 개봉할 예정이다. 다음은 감독·출연진과의 일문 일답.



지난 25일 서울 명륜동의 한 주택에서 열린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 촬영현장 공개 행사에서 출연배우들이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김혜옥, 지현우, 김영옥, 예지원, 서순현, 우현, 임현식.

## '올미다' 올겨울 극장에서 만나요

-자기 소개와 영화에 임하는 소감을 말해달라.

▲김석윤 감독=방송을 영화로 옮기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시나리오 작업이 꽤 어려웠다. 그러나 일단 시나리오가 나오고 난 후에는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워낙 연기자들과는 1년여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기나 상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김영옥=골치 아픈 가족을 진두지휘하는 큰할머니 역이다. 골치 아픈 할망구 셋에 흠아비 아들, 노총각 아들, 노처녀 손녀를 이리저리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 영화가 잘못되면 감독 탓이고 잘되면 우리 배우들 덕분인 줄 알아달라(웃음). 압제 할머니다.

▲김혜옥=치매기도 약간 있고 공주병도 있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막내 할머니 역이다.

▲서순현=뭐가 그리 급한지 하늘로 먼저 간 한영숙 씨 대신해서 촬영하게 된 둘째 할머니 역이다. 이 영화가 잘돼야 하늘에 먼저 간 한영숙 씨 영혼이 기뻐할 것 같다. 김 감독과는 시트콤 '달려라 울 엄마'에서 1년간 같이 호흡을 맞췄지만, 영화를 30년 만에 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좋다.

▲임현식=한영숙 씨가 우리 근처에서 촬영을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다. 밝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우리 사회에서 '퐁수'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리 가족이다.

▲지현우=지 PD 역을 다시 하게 돼서 마치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시트콤 촬영할 때처럼 모두 무척 편하게 대접하시고 호흡도 잘 맞아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 보고 싶을 때 '러브 액츄얼리' 같은 흐릿한 느낌이 들 것 같다.

▲예지원=촬영 한번에 명 하나, 상처 하나가

라 할 수 있는, 30대 초반으로 이유 없이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움츠러드는 노처녀 미사에서부터 어느새 인생의 배경 화면으로 전락해버린, 사회적으로 무시된 노인 세 명, 그리고 일종의 '불량주부' 같은 40대 중반의 백수 삼촌 등 사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 세 계층에 포인트를 맞췄다. 분량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았고, 영화로서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오랜만에 영화에 출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어땠나.

▲김영옥=영화로 한다고 하니 까다른 기대가 되더라. TV에서 보여준 것과 다른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애기가 전혀 다른 게 있다. 또 확실히 지나

가는 TV와 달리 한번 영화로 만들면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더 섬세하게 잘해야 해 긴장됐다. 시트콤의 팬클럽도 생겼는데,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너무 재미있다"고 얘기해주는 분들께 영화를 선사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없는 행운을 갖는 게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몹시 흥분되고 기다렸다. 할머니들은 모든 것이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데 우리를 보며 저 인생이 그렇게 소외당하고 슬픈 인생만은 아니구나 느꼈으면 좋겠다. 관객은 우리가 나이를 잊고 사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다.

연협뉴스

### TV시트콤 출연진·감독 다시 뭉쳐 '버라이어티 코믹 소동극' 표방

생긴다. 그만큼 미자가 잘 넘어지고 많이 다쳐서 그렇다. 이번 영화 하면서 좋았던 것은 미자의 속내가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방송보다 좀더 섬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많다. 시트콤이 잘돼 영화로 만들어지니 영광이다.

-1년간 방송한 시트콤을 영화 한 편으로 옮기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김석윤=방송에서는 할머니 셋, 노처녀 셋, 여자의 시각에서 보여진 남자, 혈연 아닌 가족관계, 부녀 관계 등 '관계'가 많았다. 그것을 120분 짜리 영화에 담으려다보니 불가불 삭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 현실적으로 주눅이 든 계층이

# 베니스 개막작에 '블랙 다알리아'

### 미드 팔마 감독 작품...미공의 여배우 살인사건 소재

#### 해외 영화계 이슈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제63회 베니스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미국감독 브라이언 드 팔마의 신작 '블랙 다알리아'가 선정됐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개막작을 공개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드 팔마 감독의 작품으로 영화제를 열거해 영광"이라고 밝혔다.

국내외에 많은 팬들을 갖고있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과 "베니스 영화제의 인연은 이번이 다섯번째, 드 팔마는 지난 75년 '자매들'로 베니스 영화제에 처음 진출한 이래 '블로 아웃' '레이징 카인' '언터처블스' 등의 작품으로 베니스를 찾은 경력이 있다.

'LA 컨피덴셜'의 원작자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범죄소설가 제임스 엘로이의 동명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블랙 다알리아'는 1947년 로스앤젤레스를 무대로 두 명의 경찰이 엮기적인 살인사건의 비밀을 캐나가면서 거대한 부패와 욕망의 실체와 부딪히는 과정을 다룬 작품.

소설과 영화는 40년대 중반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제로 발생했으나 아직 까지도 미공에 빠져있는 여배우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블랙 다알리아'

조시 하트넷과 에론 에크하트가 경찰 역할을 맡았고, 힐러리 스웬크는 극중에서 하트넷과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동시에 살인사건과 연루된 비밀을 감춘 여성인 매들린으로 등장한다. 스칼렛 요한슨은 두 경찰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케이 레이크 역으로 출연한다. 한편, '블랙 다알리아'란 별명으로 불리며 성공을 꿈꾸다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여배우 지방생 역할은 미아 커키너가 맡았다.

'블랙 다알리아'는 개막작인 동시에 경쟁부문에도 선정돼 다른 작품들과 함께 황금사자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한편, 올 베니스영화제는 '말출렌 드 드라이브' '트윈 픽스'의 데이비드

린치(60) 감독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레이저 헤드' '블루벨벳' '로스트 하이웨이' '엘리트트 맨' 등의 작품을 통해 컬트적이면서도 독특한 세계관을 과시해온 린치는 '광란의 사랑'으로 1990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화제 기간 중 린치감독은 신작인 제레미 아이언스와 로라 던 주연의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를 선보일 예정으로 있다.

올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은 프랑스 여배우 카트린 드브뇌, 우리나라의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동진·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 12세 다코타 패닝 성폭행 장면 촬영 논란



할리우드 최고의 아이스타인 다코타 패닝(사진)이 끔찍하게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어머니와 매니저가 미성년자인 패닝을 이 영화에 출연시킨 이유가 이 역할로 패닝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탈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어 할리우드 관계자들과 미디어들이 놀

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논란은 최근 뉴욕데일리뉴스가 여성감독 데보라 캠프파이어의 영화 '사냥개(Hound-dog)'에서 주연을 맡은 패닝이 영화 속에서 성폭행을 당하며 여러 장면에서 팬티만 걸친 나신으로 출연한다고 보도하면서부터 뜨거워졌다.

미국 남부지역을 무대로 한 영화는 진인하게 성폭행당한 경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소녀와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소녀의 애정을 그린 드라마. 뉴욕데일리뉴스는 또 패닝의 어머니와 매니저가 이번 역할이 패닝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기대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패닝의 매니저인 신디 오스브링크는 뉴욕데일리뉴스에 "단순한 성폭행 장면이 아니다. 영화의 이야기 자체가 다 코타에게 배우로서 매우 도전적인 역할이며 그것을 해내는 패닝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 장면장면마다 연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성폭행 장면은 이미 촬영을 끝마쳤으나 영화는 이후 제작비 부족으로 한때 중단상태를 빚기도 했다. 올해드라이뉴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영화의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고 이 영화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맞춤형 개성으로  
세기 첨단보청기 기술에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청기

문의: 02-1234-5678